

지역 메아리

완주군, 평창동계올림픽 관람 지원

완주군이 지역주민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지원한다.

8일 완주군은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체육인,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신청을 받아 평창동계올림픽(310매) 및 패럴림픽(60매) 입장권 총 370매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계올림픽 관람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해당 경기일정에 맞춰 동계올림픽 투지, 컬링,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게 되며, 완주군은 주민들이 관람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김제열 관광체육과장은 "동계올림픽의 현장감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김제시 성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형순, 광정근)는 8일 성덕면 복지회관 2층에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회의는 2017년에 추진된 특색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금년도 사업보장을 위한 토의로 시작하였고, 이후 올 첫 특색사업 선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여 2월 중 초등학교 생활한복 맞춰주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세부 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보다 나은 협의체 안정을 위해 부위원장에 이연진 씨, 총무에 최부호 씨를 새 임원으로 임명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올 한해도 지역의 소외이웃돕기와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여러 특색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농어촌공공 이웃사랑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섭)은 8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업단 직원 20여명은 이날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김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침상 및 장들을 청소하고 이동차량 세차 등을 실시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드리고 선물을 전달하여 설날에 대한 설례임을 더했다.

심현섭 단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동파사고 예방 총력

## 상수도 종합대책 수립·상수도 시설물 동결·동파 예방 안내문 배포 등

김제시는 연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동파 방지를 위해 자체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등 동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한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겨울철 한파 대비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 상수도 시설물 동결·동파 예방 안내문 배포 및 재해 전파관 송출 등 동파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자체

구입해 동파된 가정에 설치해 주는 등 사고 조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파 시설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체 기동처리반과 상수도 대행업체 5개사와 협조하여 긴급복구 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긴급복구 대비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수도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해 설명절 전에 보수를 완료하

여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은 "연일 지속되는 한파로 동파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간 집을 비울 때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야간에는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동파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급수사고 없는 명절 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산업단지 '클린데이' 운영

## 씩수 달 첫째주 목요일

완주산업단지가 '클린데이'를 운영해 깨끗한 환경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간다.

8일 완주산업단지는 짝수 달 첫째주 목요일을 클린데일로 정해 다채로운 지역 가꾸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클린둔산, 클린산단의 날' 행사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첫 행사는 설맞이 대청소의 날로 100여 개의 상가 주민과 아파트, 기업 근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청소 및 환경가꾸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클린데이는 대단위 기업,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둔산 6개 지구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둔산 지역에 주민참여 운동을 실시,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 지역가



완주산업단지가 '클린데이'를 운영해 깨끗한 환경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간다.

꾸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한우 클린데이는 4월에는 현대자동차 등 기업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꽃심기 행사를 6월은 로즈(장미)산단 만들기, 8월은 무더위 청결운동 확대, 10월 가을꽃동산 조성, 12월 깨끗한 거리조성 등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병운 완주산업단지소장은 "클린둔산, 클린산단의 날은 스스로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는 지역 가꾸기 운동이다"며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 상가주민 등의 나무심기 운동, 사회공헌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체육회 정기이사회 성황리 열려

김제시체육회(상임부회장 조송곤)는 지난 7일 지평선바지락회관에서 2018 김제시체육회 정기이사회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전차회의 보고와 회장업무위임, 향후추진계획, 김제시체육회 규약, 감사보고가 이루어졌다. 회의결과 2017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2017 사업실적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김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승인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2018년도 김제시체육회 주요 추진전략으로 범시민 체육운동 전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연계할 위한 사업 및 지원, 회원종목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 진흥을 통한 우수선수 양성등 추진계획에 있다.

조송곤 상임부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발전하고 각종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육성, 보급 하고 우수선수양성 및 발굴하여 지역체육발전을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여가 생활은 물론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판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평선축제 홍보 '구슬땀'

## 김제시, 수서역서 관광홍보·관광객 유치 박차

김제시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8일 수서역에서 벽골제, 금산사 등 김제시 대표관광지를 포함하여 전라도 곳곳의 수려한 관광명소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에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를 널리 알리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는 기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라도 주요 관광지 및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CSR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북도와 전남도 지자체 20여개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홍보전에 참여한 김제시는 벽골제, 금산사, 아리랑문화마을 등 김제시 주요 관광코스를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하여 소개하였으며, 홍보품 증정 및 지평선 누름

지 시식 행사를 통해 지평선 김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기차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로 사랑받는 김제지평선축제가 계속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전념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양문업 문화홍보축제 실장은 "이번 홍보전 참여로 수도권 지역에 전라도와 김제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다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 및 공동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으뜸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 벌여

완주군이 설 명절을 맞아 으뜸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을 벌인다.

8일 완주군은 9일 고산미소시장, 13일 삼례 번영가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으뜸상품권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캠페인에는 공무원, 시장 상인회, 소비자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300여명이 참여해 으뜸상품권 홍보,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동시에 홍보할 예정이다.

으뜸상품권은 현재 5% 할인된 금액으로 13개 읍면 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완주군 내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로컬푸드 직매장 등 1050개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신용카드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매편의성을 높였다.

완주군은 으뜸상품권의 주민 관심과

기업 등에서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구매시스템 확대, 가맹점 수시 모집, 축제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으뜸상품권을 정상세대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관내기업,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특히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여부에 중요한 열쇠"라며 "설 명절을 맞이해 상품권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통화량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으뜸상품권을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12월 기준 20억4000만원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